콩시러

국뷔 단편

(국뷔) 조개 줬잖앙

호랑이 수인 정국 X 해달수인 태형

시러요
2020.11.29 · 조회 425

해달은 사람에게 자기를 잡아먹지 말라고 조개를 준대. 그래서 사람이 보이면 허겁지겁 조개를 찾아서 사림
거지. 사람들은 그걸 조개 선물이라고 부른단다.

- 조개?

빠각 -!
!!!내 조개....내...조개...진짜 소중한 조개였는데...진쟈 가방속에서 이쁘고 이쁜것중에 제일 이쁜거 골라잡(
가...뿌셨어...ㅠ

태형이 정국의 손에서 처참하게 와그작하고 씹혀버린 조개를 망연자실하게 쳐다보았다.

소중한 조개를 잃어버린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다. 평소와 같이 학교가 끝나고 가방에있는 조개를 꺼내 놈놀
근데 평소와 다르게 아주 무서운 페로몬 냄새가 진동했다.

- 헉...! 오똑해....중종 애들 싸우나봐.

태형이 자리에 멈춰 발을 동동댔다. 아...진챠 여기로 안가면 짱구 본방 놓치는뎅....ㅠㅇㅠ 왜 여기서 싸우는
먹어대면서 따뜻한 집 바닥에 녹아내릴 생각이였는데... 태형이 쫄쫄대며 망설였다.

- 아...그냥...그냥 뛰어갈까?

동동 구르던 발을 멈추고 이내 태형이 다짐한듯 길을 향해 뛰었다. 점점 가까워지는 페로몬 냄새에 다리가
지며 달렸다. 나에겐....짱구가 있으니까! 태형이 달리다 가까워져오는 정말 으쓱한 골목에 잠깐 멈칫하다.
던 참이였다.

- 어? 조개 냄새.

흠칫. 골목 안쪽에서 들리는 말소리에 태형이 움찔하며 조개가 가득 든 가방을 꼬옥 움켜 쥐었다. 하여간 진